



2014년 3월 17일

방송심의



기획편성부

프로그램	국민행복시대		
방송일자	2014. 3. 11. 17:00	시청률	0.022

【총 평】

정부가 펼치고 있는 각종 정책을 소개하고, 정책 인터뷰 등으로 심층적인 조명을 한다는 점이 꼭 필요한 부분이기에는 하나, 일반 시청자들의 눈높이에서 보다 친절하게 전달하고, 보다 삶에 밀착된 이슈 관련 정책에 집중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함.

‘국민행복시대’라는 타이틀에 걸맞게 일반 시청자들의 삶과 밀착된 이슈를 우선적으로 소개하였으면 좋겠음. [라이브 이슈] M&A 활성화 대책 기대 효과는? 일반 시청자들과는 좀 동떨어진 내용이어서 시청동기가 반감되었음.

【구성 및 내용】

한-캐나다 정상회담..."FTA 타결", 세계 경제영토 60%까지...TPP 참여 '가속', 자동차 관세 2년 후 철폐...국산차 수출 '탄력' 등 캐나다와 FTP 체결 관련, 심층적으로 살펴본 구성은 좋았으나, 경제용어들을 상세하게 설명해 주는 친절함이 부족하여 아쉬웠음.

‘교황 요한 바오로 2세 1984 · 1989년 방한’은 프란체스코 교황의 8월 방문을 앞두고 예전 자료를 리뷰하는 것에 그치는 것이 아쉬웠음. 이번 8월 교황 방문의 의미와 한국 기독교계의 위상 강화 등을 엮어서 이야기를 풀어나갔으면 더 좋았을 것으로 생각함. 세계 경제영토 60%까지...TPP 참여 '가속'에서 TPP에 가입을 하면 경제성장 효과가 크다고만 이야기할 뿐 특별한 정보가 없었음. 또, 자동차 관세 2년 후 철폐...국산차 수출 '탄력'에서 돼지고기의 경우 5~13년에 걸쳐 관세가 철폐된다고 했는데, 부위별로 차등되어 철폐가 된다는 것인지, 자세한 설명이 없어서 오히려 궁금증을 자아내게 하였음. 기자 멘트에서 이야기했듯이 돼지고기 등은 민감품목인데, 자세한 설명이 있었어야 했음.

프로그램	패러디팟! 라디오정책쇼		
방송일자	2014. 3. 11. 18:15	시청률	0.012

【총 평】

귀농정책을 알아보았음. 자칫 딱딱하고 거부감을 줄 수 있는 [정부의 정책]을, 시청자들이 쉽고 재미있게 수용할 수 있도록 톡톡 튀는 감각으로 접근한 기획의 참신함 및 깨알같은 재미를 선사하는 연출이 매우 돋보였음.

【구성 및 내용】

<임평순이 또 댔다!>, <행정개그를 아시나요?>, <정책은 노래를 타고> 및 <미녀와 야수의 맞짱 대결> 등 정부의 [귀농귀촌 정책]을 다양한 시각으로 펼쳐 보임으로써, 시청자들로 하여금 [귀농정책]에 대한 궁금증을 해소함은 물론 실질적으로 도움이 되는 살아있는 정보를 제공하고 있는 점이 돋보임. 단, 구창환 소장이 <정책은 노래를 타고>에서 빠진 다음 아무런 설명없이 <미녀와 야수의 맞짱 대결>에 참여하는 구성은 적절한 상황설명이 있었으면 좋겠음.

프로그램		희망로드 세계로	
방송일자	2014. 3. 11. 20:00	시청률	0.094

【총 평】

부모가 재소자여서 돌보는 이가 없는 네팔의 시펄 보육원 아이들을 돌보는 한국국제협력단 김혜영씨의 활동을 담아냈음. 극한 상황, 열악한 환경에서 생존해가는 네팔 어린이들에게 다양한 방식으로 사랑을 전하는 김혜영씨를 비롯한 코이카 단원들의 활동이 자랑스러웠음. 네팔 현지의 어린이들 위주로 화면이 펼쳐졌는데 현지에서 봉사하는 코이카 단원으로서의 애환, 찾아온 의도와 소감 등도 들어봤다면 보다 더 좋았을 것으로 생각됨. 특히, 해외봉사 활동 모습을 통해 공공외교에 대한 시청자의 관심을 높일 수 있었음.

【구성 및 내용】

<교도소에서 온 천사들의 선생님, 김혜영 씨> 2부는 네팔 비르건즈 교도소에 있는 부모님을 방문하는 시펄보육원 아이들의 이야기가 소개되었음. 각각의 사연을 담고 부모를 만나는 장면은 서로에 대한 애정이 묵직하게 전해지며 뭉클해지는 부분이었음.

시펄보육원에서 교도소를 찾아가는 여정은 이들을 쉬지 않고 달려야하는 긴 여정이라고 했는데 지도를 통해 여정을 설명하는 그래픽을 덧붙여 주었다면 더 좋았을 것으로 생각됨. 공공외교 측면에서 '코이카'에 대한 설명과 봉사단원인 김혜영씨의 무게감이 다소 부족했음.

【자막 개선점】

시펄 보육원 아이들 인터뷰 말자막 “저는 **이거 판돈으로** 나중에 나가게 ~”에서 판돈은 “**이거 판(판매한) 돈으로**”가 **옳은 표기임**. 판돈은 노름할 때 거는 돈 등을 의미함.

1부 도입부 영상은 교도소 이름이 '네팔 뿌르당 교도소'로 나왔는데 2부는 똑같은 화면인데 '네팔 버르디아 교도소'로 나왔음. 2부 내용중에 나온 교도소 소개 자막에서는 '네팔 비르겐즈 교도소'로 나왔음. 어느 것이 맞는 자막인지 시청자 입장에서 의아한 부분이었음.



프로그램	100년의 행복, 희망 대한민국		
방송일자	2014. 3. 12. 14:30	시청률	0.012

【총 평】

노인과 여성을 위한 복지사례들이 소개되었음. 노원구의 <노인 자살방지에 특효, 실버악단의 신바람>과 <노원구 실버카페>가 소개되었는데 같은 지역, 노인관련 같은 아이템이 겹치는 느낌을 주어 방송 회차를 다르게 제작했으면 하는 생각이 들었음. 또한, <다시 한 번 점프, 여성의 능력이 깨어난다>는 '100년의 행복, 희망 대한민국'과는 거리가 있어 보여 아쉬웠음.

【구성 및 내용】

<노인 자살방지에 특효, 실버악단의 신바람>은 노인형 복지 우수사례로 꼽히고 있는 노원구립 실버악단을 소개했는데 '노인 자살방지에 특효'라는 부제는 다소 과한 느낌이었음. 노년을 활기차고 의미있게 보내는 모습을 통해 특별하게 '자살'을 직접적으로 언급하지 않아도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었음.

<다시 한번 점프, 여성의 능력이 깨어난다> 여성능력개발원의 다양한 직업 교육 훈련과정을 소개했음. 반려동물 의류디자인, 제과제빵과정 등 과정 소개와 함께 경력단절 여성의 재취업을 위한 여성능력개발원의 다양한 역할 소개가 유용한 편이었음. 그러나, 방송을 통해 자주 언급이 되었던 내용들로 다소 식상한 느낌도 있었음. <노원구 실버카페> 국내 최초 노원구립 실버카페가 소개되었음. 어르신들에게 좋은 에너지를 전달하고 노인 일자리 창출에도 기여하는 카페들이 좀 더 많이 늘어났으면 하는 바람으로 그 의미가 컸던 아이템이었음.

프로그램		희망의 새시대	
방송일자	2014. 3. 13. 11:00	시청률	0.009

【총 평】

전체적인 구성이 짜임새 있고 다양한 아이템들이 소개되어 보기 편한 흐름으로 국민생활과 직접적인 연관이 있어 집중력이 있었음. <집중인터뷰>와 <여기는 세종>의 분량을 조금 줄이고 기획취재와 현장리포트 등을 좀 더 늘렸으면 하는 생각이 들었음. 또한, 국민리포트의 아이템도 리포터의 개성을 담을 수 있는 입체적인 내용들이 소개되었으면 하는 바람이었음

【구성 및 내용】

<국민리포트>는 경기도 안산의 외국인타운, 신비의 술잔 '계영배'를 만든 경기도 광주시의 도공, 세계문화유산 신청을 앞둔 제주해녀문화, 초등학생들의 선거열풍을 차례로 다뤄 우리 사회의 다양한 측면을 수렴했음. 지역적으로도 고루 분포되었고 초등학생 및 다문화 사회의 측면까지 다양하게 다룬 기획이 돋보였음. 안산 외국인타운의 경우 이미 많이 알려져 있는데 새로운 시각의 접근방식이 아니어서 참신하지 않았으며, 초등학생들이 선거를 통해 무엇을 배웠는지 충분히 드러나지 않아 아쉬웠음.

프로그램		현장다큐 문화 행복시대	
방송일자	2014. 3. 13. 14:40	시청률	0.000

【총 평】

<이것이 아리랑이다! 김신중>, <장애인, 문화에 한 걸음 다가서다> <문화 예술 청년들 날개를 펼쳐라!> 등 미래를 짚어질 청년들의 패기와 문화예술인과 장애인을 위한 정부 정책 선정이 흥미로웠음. <이것이 아리랑이다! 김신중>은 기성세대가 갖고 있는 문화의 개념과는 다른 소통 방식으로 진화된 모습을 만들어 가는 김신중에 대한 소개는 내용도 알차고 문화소외계층이라 할 수 있는 장애인을 위한 문화정책과 예술을 전공한 청년들에게 일자리를 만들어 주는 정책의 순기능을 긍정적으로 느끼게 해주었음. '문화 인물'과 '문화예술 체육전공자 관련 일자리 창출', '장애인들의 문화예술, 체육 접근성 확대'를 현장위주로 다루며 문화로 행복한 세상을 제시했다고 생각함. 특히 'This is arirang'을 기획한 김신중씨와 행사에 참여한 청년들의 나라 사랑에 대한 열정이 느껴지는 아이템이었음.

【구성 및 내용】

2013년 3월 1일 인사동 쌈지길에서 플레시몹 형식으로 진행된 아이랑 공연을 기획한 김신중. 그 장면을 유튜브에 올리고 전세계에서 화답하는 공연까지 확대시킨 새로운 접근 방법의 문화 확산을 볼 수 있었음. 아리랑 공연 외에도 위안부 할머니들을 위한 합창과 무분별한 스마트폰 사용을 비판하는 공연 준비까지 의미 있는 일에 열정을 다하는 젊은 세대를 이해하는데 도움이 되었음.

찾아가는 장애인 체육서비스를 통해 전문적인 교육을 받게 된 이선우의 예에서 시작하여 장애인 문화 예술센터 등 정부의 장애인 문화 지원 정책을 자연스럽게 보여주었고, 예술 관련 전공자들의 취업 기회 확대를 위한 문화 공공일자리 창출의 사례도 정책의 긍정적인 측면을 잘 보여주었음. 훈련 중 부상으로 운동을 그만두었지만 은퇴선수 전직 지원 사업으로 재활치료가 된 신대용의 사례도 의미 있었음.

프로그램		한류! 세상과 통하다	
방송일자	2014. 3. 13. 15:10	시청률	0.022

【총 평】

최근 한류, 한식관련 프로그램들이 우후죽순 많이 있지만 이 프로그램에서는 재한 외국인들의 한식경연대회 미션 도전기를 기획하여 도전 과정에서 한국 사람들과의 교류, 한국문화와의 체험을 보여주고 각 도전자들의 한국에서의 삶, 미션성공을 위한 그들의 노력과 성공실패담을 함께 보여주어 휴먼다큐의 재미도 쏠쏠하였음.

【구성 및 내용】

음식을 만드는 것은 단순히 '맛'을 떠나 그 음식이 담고 있는 역사적 의미와 식재료의 준비 등 겉으로 들어나지 않는 과정에서 재한 외국인들에게 한국의 문화를 자연스럽게 접하게 했음. 수산물을 활용한 잡채를 만들기 위해 수산 시장을 방문한 라우라는 상인들과 대화를 통해 한국을 더욱 친근하게 느꼈고, 가브리엘은 전통시장을 찾아 불고기를 만드는 방법은 물론 알맞은 식재료를 구입하는 과정까지 알게 되었음. 특히, 샤홀로는 비빔밥의 맛을 내기 위한 비법으로 고추장을 이해하는 것에서 시작하게 되는데, 북촌의 고추장 만들기 체험장을 방문해 고추장에 대한 이해를 높일 수 있었음.

재한 외국인들이 경연대회 준비를 위해 수산시장, 재래시장, 전통 장 만들기 체험을 하면서 한국인들과 유쾌하게 수다를 떠는 모습, 교류하는 모습을 보여주어 '사람 냄새나는' 좋은 프로그램이었다고 생각됨.

프로그램	이상벽의 TV 시간여행		
방송일자	2014. 3. 14. 14:30	시청률	0.028

【총 평】

2008년 1월부터 2010년 3월까지 방송되었던 {TV 시간여행}을 이상벽이라는 구수하면서도 푸근한 캐릭터를 갖춘 유명 방송인을 MC로 선정해, 추억과 복고를 통한 발전적 계몽프로그램으로 부활시킨 온고이지신 스타일의 참신한 기획이 돋보임. 특히 이전의 스튜디오 진행에서 탈피해, 현장성을 강조한 야외 진행이 이전 프로그램과의 차별화는 물론 시청자가 프로그램에 함께 동참한 것 같은 친근함을 주기에 모자람이 없었음.

특히, 한국 교육의 중요성과 대한민국을 일으킨 힘 의무교육 60년 돌아보며 어제와 오늘을 만나보는 시간으로 흥미롭고 재미있었음. 구성적인 측면에서 조금 두서가 없는 듯 했지만, 전반적으로 재미와 의미를 한꺼번에 보여준 프로그램이었음.

【구성 및 내용】

반기문 사무총장이 자신이 쓰던 옛 교과서를 UN에 기증하는 영상을 도입부에 삽입해 프로그램에 대한 관심과 시청욕구를 유도하기에 부족함이 없었음.

교육이라는 주제에 맞게 학교 전경 앞에서 오프닝을 했고, 아이들과 함께하는 교육 현장과 구세대들의 박물관 탐험을 통한 교감으로 구성되었음.

또한, 가수 '비'가 출연했던 드라마 <상두야! 학교가자>에서 차용한 <상벽아! 학교가자>의 타이틀 네이밍이 매우 신선했을 뿐 아니라, 5~60년대의 초등학교 의무교육이라는 주제와의 연계성도 매우 좋았음. 특히 이상벽 MC가 서울 강월초등학교를 찾아 학생들과 함께 옛 초등학교 이야기를 풀어나가고, 옛 모습을 간직한 서울교육박물관에서 학창시절의 교복을 입어보는 등 생동감 넘치는 구성이 흥미를 더해주기에 부족함이 없었음.

단, <서울 강월초등학교>에서 <서울교육박물관>으로 이동한 후 다시 <서울 강월초등학교>로 장면이 전환됨으로 인해, 자칫 시청자들이 시간의 흐름에 혼란을 겪었을 소지도 있었던 것 같음.

【참고사항】

{대한니우스의 '그 때 그사람'}, {다시 보는 대한뉴스}, {대한니우스의 재발견} 등 <대한뉴스>를 주로 활용하는 프로그램들과의 중복감이나 기시감을 없애고, {이상벽의 TV 시간여행}만의 차별화된 영상구성을 위해 보다 다양하면서도 주제와 잘 부합하는 자료발굴에 힘써 주었으면 좋겠음.

프로그램	100살의 행복, 100살의 희망		
방송일자	2014. 3. 14. 19:55	시청률	0.070

【총 평】

<뜨개질 할머니의 행복한 나눔 - 김수임 할머니> 최고령 통역봉사와 뜨개질을 통해 장애인 돕기 바자를 여는 94세 김수임 할머니의 이야기로 프로그램 성격과 잘 맞는 주인공이었음. 특히, 자신의 재능을 이웃과 사회에 봉사하며 평생을 살아왔으며, 아들의 장애 앞에서 좌절하기보다는 오히려 그로 인해 장애인 복지와 사회 복지에 관심을 갖게 되었다는 '어머니'로서의 큰마음과 의지가 귀감이 되었음.

【구성 및 내용】

고령화 사회를 맞이하면서 '장수(長壽)'가 축복만은 아니라는 인식이 커지고 있는 가운데, 고령화 사회에서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지 희망의 메시지를 알려 주었음. "봉사는 죽을 때까지 하고 싶어요"라면서 "받는 사람이 좋아하면 됐지 뭐"라고 말씀하시는 모습에서 아름다운 노년, 행복한 노년의 모습이 무엇인지 가르쳐 주었음. 현재 우리 사회를 살아가는 사람의 모습을 보여주는 동시에 앞으로 우리가 가야 할 길을 제시하기도 하는, 짧지만 강력한 효과가 있었음.

프로그램	방방곡곡 국민 행복 리포트		
방송일자	2014. 3. 14. 20:00	시청률	0.036

【총 평】

<마을> 내 인생의 2막 실버극단 은빛여울, <사람> 손끝으로 읽는 세상, 육근해 한국점자도서관 관장, <우체통> 찾아가는 아동점자도서 버스 '북소리 버스'로 구성되었는데, 전체적인 구성의 짜임새가 부족하다는 생각이 들었음. <우체통>에서는 찾아가는 점자도서관 정보서비스팀 직원들이 아동점자도서 버스 '북소리 버스'를 통해 느낀 점 등을 이야기하는 내용이 이어졌는데, 육근해 한국점자도서관장의 이야기와 맥을 같이 하는 내용을 굳이 꼭지를 나눠 소개할 필요가 있을까 하는 생각이 들었음.